

뜨거운 감동의 마음으로

-성찬례의 삶에 관한 묵상- 헨리 나웬 신부.

견진교리: 미사에 대한 강의

뜨거운 감동의 마음으로.....	1-성찬례의 삶에 관한 묵상- 헨리 나웬 신부. 1
견진교리: 미사에 대한 강의	1
서언.....	1
I.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기(상실)	2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2
II. 하느님을 현존을 알아차리기(현존).....	3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3
III. 낯선 이를 초대하기(초대)	4
“나는 믿습니다.”	4
IV. 일치로 들어가기(일치)	6
“받아서 먹으십시오.”	6
V. 사명에 나아가기(사명:파견).....	8
“가서 알리십시오.”	8
결론.....	9

서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찬례와 삶에 관한 성찰의 기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상실감, 현존, 초대, 일치 그리고 사명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성찬례 기념제의 다섯 가지 주요 측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루가 24, 13-15.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I.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기(상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두 번째 사랑(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오는 상실감 즉 이 모든 상실 너머에는 신앙의 상실-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확신의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다. 얼마 동안 우리는 이 상실들을 참아낼 수 있고 또 하느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용기와 인내로써 상실을 살아내기도 한다. 삶의 고통과 상처는 살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또 확신을 심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온 것들-기도, 예배, 성사, 공동체 생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 등-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삶의 기념 예식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따듯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움직여 왔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에 관해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절히 살아 있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주었다.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맛보며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분의 현존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도 않다. 더 이상 그분에 대해 특별한 느낌도 없다.

성찬례는 또 다른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성찬례는 회한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있다. 상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회한으로부터 돌아서서 감사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줄 수 있는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고맙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성찬례를 기념하고 성찬례의 삶을 살아가는 큰 신비는 상실에 대한 슬픔을 통하여 삶을 하나의 선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그 삶의 연약함과 소멸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꽃을 꺾어 우리 손에 잡을 때, 공중에서 나비가 춤출 때, 조그만 아기를 돌볼 때 우리는 삶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다. 연약함과 선물이라는 사실이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이 두 가지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성찬례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된다.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하는 기도만큼 자주 그리고 친밀하게 말해지는 기도는 아마 그리스도교 역사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기도는 서방의 모든 성찬 예식의 시작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동방의 예식에서도 계속되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자리 잡고 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하느님 백성의 울부짖음이며,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는 호소이다. 이 자비를 위한 울부짖음은 우리가 어쨌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 자신이 겪은 상실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겠다는 것을 기꺼이 고백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자비를 청하는 호소는 하느님을 비난하고 우리 자신의 상실에 대하여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비추어 볼 때 전혀 합당한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일 때에, 심지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낄 때에 이 비난은 인간 전체의 상처에 관한 우리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 인간의 부서짐이 단지 우리를 슬픈 희생자로 만드는 운명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랑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인간의 선택에서 생기는 쓰라린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냉소의 벽을 허물고 나오기를 계속하는 기도이다. 그렇다. 우리는 죄인이고 희망이 사라진 죄인들이다. 모든 것은 상실되었고 아무런 힘도 꿈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의 은총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낮기를 다시 호소하고 우리의 슬픔 한 가운데에서 감사해야 할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감히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필요하다.

II. 하느님을 현존을 알아차리기(현존)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느님 현존의 모형들로 가득 차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자렛 회당에서 벌어지는 예수 이야기에 항상 감명을 받는다. 그곳에서 예수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읽는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뉘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 4, 18-19)

이 말씀들을 읽은 후 예수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갑자기 고통 받는 사람들, 뉘인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은 나자렛 회당 밖의 그 어딘가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해방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느님은 그들에게 현존하고 치유하는 분이 되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언젠가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또한 들음 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느님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어느 곳에서 나에게 닿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나의 슬픔, 애통함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인가?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말씀의 성사성, 하느님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

처음에 이런 사실은 말의 주요 가치가 그 말의 적용성에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새롭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미,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무의식중에 읽혀진 말씀의 치유 혹은 파괴하는 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단지 어떤 유용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 말들은 내 피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뛰게 하며 흥분하게 만든다. 또한 나를 다르게 느끼게 하고 또 생각하도록 만든다. 나에게 새로운 존재 양식을 주어나를 들어 올리며 나에게 관한 또 다른 지식을 주고 있다. 이 말들은 나를 낮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수를 길에서 만나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성서를 설명해 줄 때에 우리는 온 존재를 다 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를 창조한 말씀이 또한 치유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현존하기를 바라며 근원적으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말씀이 지닌 이러한 성사적 특징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현존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자리 잡게 하는 그런 현존의 하느님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레베카, 야곱과 레아의 하느님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윗과 솔로몬, 베드로와 바오로, 프란체스코와 도로시 데이의 하느님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 세계를 포용하는 사랑의 하느님으로, 우리 여정의 동반자로 나타난다.

성찬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은 하느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 올려지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고유한 자리를 갖게 된다.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들이 실상은 거룩한 삶들로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찬례에 쓰여지고 읽혀지는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와 함께,

“주님은 비천한 그의 종의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고 말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전례로서 기념하는 성찬례가 우리를 성찬례적인 삶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성찬례적인 삶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구원적인 현존을 계속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깨달아 가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길에서 우리를 만나 말씀을 설명해 주고 당신의 현존을 알려주며 무엇보다 먼저 그 현존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 지펴 줄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은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준다.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 준 분을 따뜻한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낮선 이를 초대하기(초대)

“나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와 함께 묵어 달라고 예수께 청하는 것으로 성찬례를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은 오히려 예수가 우리에게 그의 집에 머

물러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해 달라고 우리에게 청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청을 받고 싶어 한다. 초대 없이 가면 예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를 안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낯선 이로, 아마도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인 낯선 이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나 낯선 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의 많은 슬픔을 견어주고 난 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각했던 것처럼 작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난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길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들어와 잠시 동안 말을 나누었던 사람,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성찬례는 이런 초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얘긴데!”라는 말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감히 말해야 한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온 존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비밀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실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낯선 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친밀하고 내적인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길을 갈 때에나 동행자들에게 얘기를 할 적에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내적인 생각과 느낌들과 함께 혼자 있을 때에도 나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에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동반자로서 당신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의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나의 어떤 부분을 숨기고 싶기조차 한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들, 느낌들 그리고 정서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며 살고 싶은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알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착한 목자로 당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일까? 그분이 우리 내적 삶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 자신의 좋은 부분뿐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의 빛뿐만 아니라 그늘까지 그분에게 보여 드리고 싶은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고 싶은 것일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믿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의탁하고 있는가?”

성찬례 예식과 우리의 성찬례적인 삶의 순간에 있어 사도신경은 교회 교의를 요약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리스 말로 표현되듯이, 의탁, 신뢰의 행위이다. 그것은 위대한 “예”의 행위이다. 우리에게 성서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서로서 설명해 준 분에게 “예”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깊은 “예”이며, 그분이 말한 말씀에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말한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식탁으로 이끌어 준 그분에게 예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당신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현존 안에서 걷는 것 이상으로,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 위하여 감히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열어 보이게 된다.

예수는 함께 가던 두 여행 동료들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들 집에 가서 식탁에 함께 앉는다. 그들은 그를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여 대접한다. 예수는 중심 자리에 앉는다. 그들은

그분의 옆에 앉는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도 그들을 바라본다. 친밀함, 우정, 공동체가 느껴진다. 그러자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훈련되지 않은 눈이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는 제자들의 손님이지만, 그들의 집에 들어오자 곧,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와의 온전한 일 치에 들어가도록 초대한다.

IV. 일치로 들어가기(일치)

“받아서 먹으십시오.”

성찬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다. 빵은 단순히 우리에게 빵이 되려는 예수님의 바람을 표현하는 상징이 아니다; 잔(컵)은 단순히 우리의 마실 것이 되려는 그의 갈망을 표현하는 징표가 아니다. 빵과 포도주는 줌으로써 그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다. 빵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그분의 몸이요, 포도주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분의 피다. 하느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현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현존한다. 하느님은 오래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성찬례의 기념 순간에, 이렇게 식탁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유보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준다. 이것이 육화의 신비이다. 이것은 또한 성찬례의 신비이기도 하다.

육화와 성찬례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당신을 온통 내어주는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의 희생과 식탁의 희생은 한 희생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뻗쳐지는 거룩한 자기 내어줌의 완전한 희생이다. 이 같은 하느님의 전적인 자기 내어줌의 사랑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일치, 친교”이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느님은 온전히 우리와 일치되기를 바라므로 하느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한 사랑 안에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 존재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긴 역사 전체는 이처럼 영원히 심화되는 일치의 역사이다. 그것은 단순히 일치, 결별,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일치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창조한 피조물과 친밀하게 일치되는 새로운 길들을 영원히 추구하는 역사이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하느님의 열렬한 바람이 성찬례와 성찬례적인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느님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됨으로써 인간 역사에 들어오고자 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때와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음식과 마실 것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고 쪼개어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 손에 빵을 들고 입에 넣어 먹게 되면, 그렇다. 그 때에 우리 눈은 열리고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

성찬례는 이처럼 알아보는 것이다. 그것은 빵을 들고, 축복하고, 쪼개고, 나누는 분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와 일치되기를 바라는 그 분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일치하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가

장 깊은 울부짖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만든 분에 의해서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이를 수 없는 일치에 대한 갈망을 심어 놓았으며 우리는 그 염원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하느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한 충족,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른 곳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광채, 역사의 흥분, 사람들의 매력을 바라보지만, 그 단순한 빵의 쪼갬, 그렇게나 일상적이고 그렇게나 특징 없는 그곳은 우리가 염원하는 일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예수와 가장 친밀한 일치에 도달했을 때에, 나그네-친구가 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해서 그가 두 친구에게 가장 현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없는 자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찬례의 가장 거룩한 측면들 가운데 한 측면과 만나게 된다. 즉 예수님과 가장 깊은 일치의 신비는 그의 부재중에 일어나는 일치라는 것이다. 그분이 준 빵을 먹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고, 너무나 깊이 또한 영적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그들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분은 그들 안에서 숨쉬고, 그들 안에서 말한다. 그렇다. 그분은 그들 안에서 살고 있다. 그분이 준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께서, 그들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가장 거룩한 그 일치의 순간에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이것이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가 성찬례적인 삶을 살 때에도 깨닫는 의미이다. 그것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스러운 일치이므로,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은 더 이상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죽어갈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죽어갈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죽어갈 우리의 몸으로는 만질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어둠의 세력과 악이 도달할 수 없는, 죽음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는 그 곳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오신 것이다.

예수와의 일치는 그분과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무덤에 묻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여정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을 동반하기 위하여 일어선다. 일치, 그리스도처럼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영역으로 인도되어 간다. 일치는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곳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건강과 질병, 생명과 죽음의 낡은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누고, 판단하고, 분리시키고, 평가하기를 계속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속한다. 빵을 먹고 그분을 알아보았던 두 제자들은 갑자기 다시 혼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혼자됨은 그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 느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홀로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결속이 그들 사이에 생겨났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풀이 죽은 채 땅을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말한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며 성서를 설명해 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

이 새로운 몸은 영적인 몸이며, 사랑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 몸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용서 안에서, 화해, 상호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감,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영원히 증가되는 관심 속에서, 이처럼 일치는 공동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명어로 이끈다.

V. 사명에 나아가기(사명:파견)

“가서 알리십시오.”

성찬례는 사명으로 마무리된다. “가시오, 지금 그리고 알리시오!” 사제가 미사를 끝내면서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 “가시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일치가 끝이 아닌 것이다. 사명이 바로 끝이다. 하느님과 거룩한 친구인 일치는 성찬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자신만이 즐기거나 비밀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두 친구들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서 알리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성찬례 기념의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례적인 삶의 마지막 부르심이다.

“가서 알리십시오. 당신이 듣고 본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매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남겨놓고 온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가 아무것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분이 살아나셨으며, 참으로 살아 계시다고 알리십시오.”

사명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으며, 우리처럼 예수에 대해 듣고 실망한 사람들이다. 사명은 항상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한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한다. 이 사실은 별로 편안한 것이 못된다. 나의 “특별한 존재방식”을 다룰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보다 나를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언제나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아직도 큰 도전이 남아있다. 우리 체험의 정당성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 배우자들, 아이들, 형제자매 등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 안에, 그분을 아는 우리의 방식으로 편협하게 가두기가 너무나 쉽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셨고, 성령은 원하시는 대로 분다.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말해지는 자리이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서로 다르다. 어떤 때는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과 침묵 중에, 부드러움과 강인함 중에, 눈물과 웃음 중에, 대립과 초대 중에 오시는 성령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점차 모두가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찬례는 때때로 화려한 성전에서 거창하게 기념되고 있다. 그러나 더 자주 성찬례는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이다. 성찬례는 거실에서, 감방에서, 다락방에서-세계의 큰 움직임 밖에서 일어난다. 성찬례는 비밀스럽게, 제의나 초 혹은 향료 없이 벌어진다. 아주 소박한 몸짓으로 일어나기에 바깥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나 크거나 작든지 간에, 축제나 감추어진 사건이든지 간에, 성찬례는 똑같은 사건이며, 삶이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

성찬례-감사-는 마지막에는 위에서부터 온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짤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것은 받아야 할 선물이다. 그것은 자유 속에 주어지고 자유롭게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가 그의 여정을 계속하고 그래서 나그네로 남아있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를 우리의 내적 삶에 받아들여,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만지고 우리의 회한을 감사로 바꾸도록 청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 모든 것 심지어 가장 보잘 것 없는 것까지 모두가 새로워진다. 우리의 작은 삶은 위대한 삶이 되어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사업에 한 부분이 된다.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나면, 아무것도 우연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으며, 혹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건까지도 믿음,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찬례의 삶이며, 모든 것이 길에서 우리에게 합류하신 분에게 “고맙습니다.”를 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삶이다.